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**보도자료**	http://www.mke.go.kr
'12년 5월 23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자료문의 : 윤종구 신산업표준과장, 한상미 연구관(509-7295)	

인쇄전자 국제표준화 시동

-"신산업 패러다임 인쇄전자시대 한국이 리드"-

□ 전자제품 생산을 혁신적 공정인 친환경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주목 받는 인쇄전자 국제표준화(IEC TC/119) 제 1회 총회(5.22~24)가 각국의 관심 속에서 지식경제부 윤상직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, 독일, 영국, 일본 등 20여개국 200여명의 전문가가 모여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되었음

○ 신산업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선진 각국의 경쟁을 물리치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, 지난해 9월 국제표준화기구에 인쇄전자 기술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였고, 인쇄전자 국제표준화를 총괄 운영하는 간사국의 지위를 맡게 되었음

* 국제표준화기구 : ISO(111개국 참여, 214개 TC), IEC(82개국 참여, 96개 TC운영)
* 기술위원회(TC, Technical Committee) : 분야별 표준정책과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위원회
* 국제임원단 : 의장 : 허지슨 알랜 박사 (Dr. Alan Hodgson, 영국 3M)
국제간사 : 이해성 교수(전주대), 부간사 : 조규진 교수(순천대)

< 인 쇄 전 자>

*인쇄전자 : 대량생산, 친환경, 연속공정 등의 전자제품 생산시스템 혁신, 향후 5년간 매년 30%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며 2020년 세계시장 규모 66조원으로 예측(IDTec 보고서)

□ 인쇄전자는 태양전지, 조명, RFID 태그, 센서 등 타 산업에 대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므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자국 기술 위주의 국제표준 확보가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치열한 표준전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임

○ 특히, 인쇄전자 기술은 NT, IT 등의 융복합 기술로서 일정 수준의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아직 근접할 수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참여국이 미국, 일본, 영국 등 기술 선진국들임

* 정회원국(P-member) : 독일, 미국, 일본, 영국, 스웨덴, 핀란드, 중국, 이태리, 러시아 등 11개국
* 준회원국(O-member) : 프랑스, 네덜란드, 캐나다, 브라질, 호주, 폴란드, 말레이시아, 체코 등 8개국

□ IEC 인쇄전자 기술위원회가 설립되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간사국으로써 우리나라가 수립한 기술위원회의 운영전략, 조직구성, 국제임원 선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

①(운영전략) 인쇄전자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국제 표준화방향 및 범위에 대한 각국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예상됨

②(조직구성) 기술위원회 하부조직인 작업반(WG)을 구성하는것으로 자국의 강점 분야를 부각시키려는 뜨거운 논쟁 속에서 간사국인 우리나라는 6개의 WG 구성을 제안하고 2개의 WG 확보와 의장 수임을 주장할 계획임

* WGs : WG1(용어), WG2(소재), WG3(장비 및 부품), WG4(인쇄전자공정 적합성), WG5(전자제품), WG6(안전·보건·환경)

③(국제임원) 의장을 도와 국제표준화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의장직 확보를 위해 각국에서는 총회 전부터 표준외교를 펼쳐 자국의 전문가를 추천하고 있는 상태로,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전문가로 명성이 높은 건국대 신기현 교수를 추천할 예정임

□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인쇄전자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쇄전자 표준화 로드맵과 한국의 강점 분야인 장비, 제품분야 등의 국제표준 제안발표를 하고 WG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

□ 동 총회시 국제표준화의 조속한 정착과 인쇄전자 분야를 리드해 나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미나와 국제심포지엄 등 부대행사도 같이 열렸음

○ (세미나) 총회 오프닝 행사시 우리나라 인쇄전자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조발표와 오후 세션에서 각국의 인쇄전자산업현황 및 표준화와 관련한 제언발표가 있었음

* 인쇄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(지경부 R&D 전략기획단, 주영섭 MD)
* 인쇄전자 소자 개발방향과 표준화 이슈(삼성전자, 유인경 부사장)
* 한국의 인쇄전자 비전(건국대, 신기현 교수)
* 각국의 인쇄전자분야 현황과 인쇄전자표준화 관련 제언 (일본, 독일, 영국, 스웨덴, 미국 등)

○ (심포지엄) "한국-핀란드 인쇄전자 공동 협력 심포지엄"으로 “하이브리드 인쇄소자 기술”, “인쇄방법으로 접근 가능한 인쇄전자 시장 예측” 등 양국 인쇄전자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인쇄전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토론이 있었음

□ 이날 **총회 환영사에서 윤상직 차관**은

○ **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인쇄전자분야의 국제표준화의 중요성**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,

○ 새로운 기술위원회 설립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고 신뢰감 있는 기술위원회의 운영으로 **인쇄전자 분야 네트워크 허브의 역할**과 인쇄전자 산업의 **조기 시장형성에 기여**해 **국제사회에 이바지** 할것을 주문하였음